

**들어가기**

본문은 성전 미문(美門)의 얇은뱅이가 일어서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시간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3:1)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2명은 성경 전체 속에서 증인의 수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나타나는 사건은 역사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둘러보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다 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성전 “미문” 옆에 초라한 행색의 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3:2)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로서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란 의미입니다. 이 문의 또 다른 별명은 ‘golden gate’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혈통적으로 에서가문으로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땅에 많은 재정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미문을 황금으로 입혀 가장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Q, 헤롯 성전에 있던 “미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미문에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종교적 허영심을 충족하려 했으며, 예배를 드리러 갈 때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문에는 유대인의 허영과 교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미문 옆에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얇은뱅이가 된 걸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얇은뱅이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과 교만을 이용하여 먹고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허영심과 선택받은 예배자라는 교만을 가지고 황금문을 드나들면서 걸인들을 외식적으로 구제하였습니다. 이 거지는 허영심을 가진 예배자들의 또 다른 면입니다. 허영으로 가득찬 종교인들의 가난한 속마음입니다.

**Q, “미문”에 녹아져 있던 의미를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이유로 나를 잡아먹고 있는 종교적 안일주의는 없는지 살피고 나누어 봅시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들어가다 이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성전 미문을 드나들면서 생존을 위하여 앉아 있는 거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도는 그 거지를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3:4)

무엇이 무심했던 관계를 생명으로 인도하였을까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나누고, 복음의 교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행2:43~47) 오순절을 경험한 사도들은 어제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짐도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인생의 날개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부르자, 생존을 위해서 미문 곁에 던져 있던 인생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

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3:6~10)

*Q, 베드로와 요한은 오래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미문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 앓은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행3:4; 행2:43~47)*

에스겔은 골짜기 안에 가득한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불자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겔37:1~12)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줄기가 솟아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화려하고 웅장한 골든 게이트 옆에서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앓은뱅이 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천리반도에 불어 임하면 회복되어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Q,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자세히 묘사해 봅시다,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서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오기** 앓은뱅이가 참된 예배자로 일어난 사건은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물론 한 개인의 치료의 사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임하고 난 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혹시 골짜기의 생기 없는 뼈들처럼 죽어 있었더라도, 성령께서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Q, 본문의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하며 나누어 봅시다,*

▶ 요즘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팀원들에게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봅시다,

▶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간증으로 나누어 봅시다, 거기서 얻은 기쁨과 만족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 :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의 선교적 제자됨을 위해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  
이번 주간 영덕/울진선교, 일본선교를 위해  
모든 교회학교와 이번주간 고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각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